선운사 도솔암, 지장기도로 왕생 발원

7월 26일 7차 기도 입재도
1029일간 천도재 21번 봉행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도솔암은 7월 26일 도솔암 대웅전 앞 마당에서 5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1029일동안 봉행된 제6차 지장기도를 회향했다.

해동제일 지장성지 고창 선운사 도솔암이 제6차 1029일 지장기도 회향법회 및 제7차 1029일 기도 입재법회를 봉행하고 선망부모와 조상, 유구무주 영가들의 왕생극락을 발원했다.

선운사 도솔암(주지 경우)은 7월 26일 도솔암 대웅전 앞 마당에서 5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1029일동안 봉행된 제6차 지장기도를 회향했다. 지장기도는 합동천도재의 일환으로 봉행됐으며 돌아가신 선망부모와 조상, 태중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법석으로 마련됐다.

제6차 지장기도는 지난 2017년 10월 1일 입재해 1029일 동안 매 49일 마다 21번의 천도재를 봉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천도재를 마지막으로 1029일간의 기도를 회향했다.

법회는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복청게, 도량게, 거불, 권공, 화청, 퇴공, 시식, 소지의 순으로 불교전통의식에 따라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운집한 불자들이 선망영가들의 극락왕생과 다겁생의 법장소멸을 기원했다. 이날 도솔암은 제7차 1029일 지장기도 입재법회도 봉행했다.

이날 입재한 1029일 지장기도는 2023년 5월 20일까지 1029일간 매주 일요일마다 천도재를 봉행하고 매 49일마다 21번의 천도재를 봉행하게 된다.

법회를 주관한 총무 성본 스님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달려와 동참해주신 불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불자 여러분들의 원력으로 세차게 내리던 장마비도 오늘 하루 그치고 모든 법회가 원만하게 진행됐다. 중생 구제를 위해 성불도 늦추었던 지장보살의 원력으로 모든 영가들이 극락왕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회는 철저한 방역을 마친 후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됐다. 특히 대중들에게 식사공양 대신 주먹밥과 떡, 생수를 포장해 전달했다.

수해복구 위해 미소원 아빠들 달려가다

7월 26일 자성대 일대서
전기 공사 및 청소 담당

부산에 물 폭탄이 떨어졌다. 자동차가 떠내려갔고 지하에 있는 가게들은 초토화 됐다. 안타까운 수재민들을 위해 미소원이 나섰다.

사단법인 미소원(이사장 장유정) 아빠봉사단이 7월 26일 부산 동구에 위치한 자성대 아파트와 안창마을 범일 1동 산사태 지역을 방문해 봉사를 실시했다.

봉사에는 장유정 이사장을 비롯해 아빠 봉사단 10여 명이 동참했으며 피해를 입은 각 집을 방문해 전기 누전을 예방하는 누전 테스트 및 전기공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물에 젖은 가구를 옮겨주고 청소를 지원했다.

이에 앞서 미소원은 수재 복구를 위한 성금도 전달했다. 미소원은 지난 7월 22일 수해복구지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지원금은 부산 동구 자성대복지관에 200만원과 미소원 회원 중 피해를 입은 수해가정에 100만원이 지원됐다. 지원금은 백중 기도비에 회원들이 십시일반 후원한 보시금을 더해 마련됐다.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은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특히 미소원 인근 시민회관 근처에는 자동차가 떠내려가고 흙탕물에 잠겼다. 지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상품들이 모두 물에 젖어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이다"며 "긴급지원과 후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미소원은 수해복구 지원금 300만원을 동구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회원들이 모은 수해복구자금이며 벽지와 장판 등 수해복구 용품 구입비로 회향된다. (051)646-9074

이도경 부산지사장


사단법인 미소원 아빠봉사단이 7월 26일 부산 동구에 위치한 자성대 아파트와 안창마을 범일1동 산사태 지역을 방문해 봉사를 실시했다.

광명사, 백중 참의미 '孝 실천'으로 강조

7월 26일 백중기도 입재

'효' 전하는 프로그램 운영
부모은중경 현수막 설치해
어린이 위한 효 교육 실시


광명사는 7월26일 대광명전에서 '불기2564년 백중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 광명사는 백중의 참된 의미는 효 실천이라 강조하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부산 천태종 광명사가 백중기도를 입재하며 '효(孝)' 실천을 강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백중의 참 의미를 전했다.

광명사(주지 개문)는 7월26일 대광명전에서 '불기2564년 백중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 입재식은 주지 개문 스님 및 신도들이 모여 흰 국화를 영가에 올리며 조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영단을 향해 다함께 기도하며 시식(施食)에 동참했다.

주지 개문 스님은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며 "백중의 참된 뜻, 효를 실천하고 마음에 바르게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님은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며 "효를 실천해 나가면 나라와 온 인류를 위해 다시없는 큰 공덕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광명사는 영가의 업장을 씻는 관욕의식 및 헌공 등 일반적인 백중 입재식으로 진행하면서, 도량 곳곳에 효를 강조하는 말씀을 붙여 눈길을 끌었다.

특히 영단 바로 옆에 부모의 은덕을 기리는 〈부모은중경〉을 현수막으로 제작해 벽에 걸었다. 이 뿐 아니라 어린이 법회에서 광명사는 〈부모은중경〉을 설명하며 아이들에게 부처님의 효를 설명하는 시간도 진행했다.

어린이 지도법사 혜안 스님은 "부모님의 사랑은 보물과 같다.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대조사님은 백행의 근본이 효이며 효를 실천할 때 온 인류를 위한 큰 공덕이 된다고 하셨다"며 효 실천을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회 학생들은 〈부모은중경〉을 가지고 병풍을 만들며 효에 대한 마음을 다시 되새겼다.

아울러 광명사는 부모에게 전하는 편지를 담기 위해 '하얀 우체통'을 설치했다. 영단을 찾아 재를 올리는 사람들과 어린이들이 부모에게 편지를 적어 넣는 곳이다. 박성현 총무팀장(어린이 지도교사)은 어린이가 쓴 편지를 공개하며 "요즘 어린이들에게 효를 실천하라 가르치는 곳이 없고 이런 교육조차 낯설어 하는 게 사실이다"며 "백중 기도와 함께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수정 학생(장서초 3)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께 편지를 쓰며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희 부모님을 낳아주셨기에 제가 태어났다"며 "한번도 뵌 적은 없지만 극락에서 평안하시길 바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광명사는 목련존자의 효심을 아는 것이 백중의 참 의미이고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박성현 총무팀장은 "재를 지내는 것도 좋은 의미이지만 상월원각대조사님의 말씀처럼 실천이 큰 공덕이 된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릴 때 아이들을 교육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돕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선진규 정토원장 49재 막재 엄수

7월 26일 정토원 법당서


김해 정토원 신도회는 7월 26일 대법당에서 정토원 선진규 원장의 49재 막재를 봉행했다.

봉화산 정토원의 선진규 원장의 49재 막재가 엄수됐다.

김해 정토원 신도회는 정토원 선진규 원장의 49재 막재를 7월 26일 정토원 대법당에서 봉행했다.

선진규 원장은 김해 봉화산 봉우리에 호미든 관세음보살상을 조성하여 심신, 사회, 경제, 사상 개발을 목표로 생산 활동과 계몽운동을 주장했으며 불교혁신을 위해 노력했다.

막재에는 사단법인 광주 전통불교 영산재 보존회 회장 월인 스님, 고성 적멸보궁 지성 스님, 김해 금강사 법장 스님, 하재길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권양숙 여사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월인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교의 포교와 화합을 위해 노력한 큰 분이셨다"며 "장마 가운데 이렇게 해가 밝게 비치는 것도 마치 광명의 빛을 일러주는 선진규 법사의 마지막 당부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지역어르신 위한 문화체험 호응

구례군건강센터, 7월 20일
행복 노후 위한 프로그램


한지공예 프로그램 현장.

화엄사(주지 덕문)에서 운영하는 구례군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도운)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선보인 문화체험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마사회 지원사업인 '오감만족 한지공예'와 '시니어 리마인드 웨딩'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시니아 리마인드웨딩은 7월 20일 구례지역 60세 이상 11쌍 부부의 결혼식과 함께 진행됐으며, 오감만족 한지공예는 지난 1월 21일 시작해 7월까지 구례군 60세 이상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생활공예품인 '애기장'과 '서랍장' 만들기를 통해 참여자들 간의 소통을 지원하고 삶의 활력을 찾아 작품 완성에 대한 성취감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센터장 도운 스님은 "노년기 정서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즐겁고 신나는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지영 작가 개인전 개막

7월 25~8월22일까지

명상을 주제로 작품의 세계를 열어가는 현지영 작가의 개인전 '예술을 통해 경험하는 명상의 시간, 내 마음을 볼 뿐' 이 7월 25일부터 김해 은암문화센터 1층 은암갤러리에서 열린다.

개막식에는 은암문화재단 이사장 신공 스님, 부산 용두산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 허성무 창원시장 등 사부대중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시는 8월 22일까지 이어진다. 은암문화재단 이사장 신공 스님은 인사말에서 "선수행과 마음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은암문화센터에서 명상을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작품 세계를 통하여 바쁜 일상에서 단비 같은 무위(無爲)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지영 작가는 "알아차림을 통해 무상과 무아의 지혜를 얻으면 내 마음속의 아미타불을 만날 수 있다"며 "내 마음에서 일으키는 번뇌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만 있다면 지금 이순간이 극락세계가 될것"이라며 작품을 소개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뮤지컬 '싯다르타' 시즌2, 부산서 만난다

8월14~16일 영화의전당서
동적인 안무 강화 등 변화


부처님의 일대기를 담은 뮤지컬 '싯다르타'가 부산을 찾아온다. 뮤지컬 공연은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8월 14일~16일 오후 2시와 6시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14일에는 오후 8시에 진행된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 '싯다르타'가 한층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부산을 찾는다.

뮤지컬 '싯다르타'는 붓다의 삶과 깨달음, 전법의 과정을 담은 내용으로 부산에서는 두 번째 공연이다. 뮤지컬 공연은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8월 14일~16일 오후 2시와 6시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14일에는 오후 8시에 진행된다.

연출은 성천모 감독, 싯다르타 역에는 배우 김보강, 어린 싯다르타 역은 최윤우가 맡는다. 배우 김보강은 뮤지컬 삼총사, 영화 머니백, 드라마 외출 등에 출연해 뛰어난 연기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 배우 최윤우는 부부의 세계, 마이베이비 등에 출연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연출자와 출연 배우들에 변화가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공연에 비해 새로운 느낌으로 기대가 높다. 코로나19 사태를 염두에 두고 뮤지컬 도입부에 병자의 모습을 넣고, 안무도 다소 정적인 분위기에서 동적인 분위기로 변경하는 등 새로운 시도도 가미했다. 제작사 측은 "권력과 부를 버리고 깨달음의 길로 나선 부처님의 삶을 통해 코로나19 시대 중생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가능하며 관람료는 VIP석 12만 원, R석 10만 원, A석 8만 원, B석 4만 원이다. 학생, 종교인(불교 기관단체 직원 포함),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20인 이상), 60세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재관람 등에 대해 증빙서류 지참 시 20~50% 할인 이벤트도 진행된다. 좌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총 400석만 오픈된다.

김면수 프로듀서는 "극의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구성력을 좀 더 탄탄하고 짜임새 있게 마련했다"며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기에 힐링 뮤지컬로 다가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1661-4191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아름다운세상~' 모임 함박복지관에 물품 지원

아름다운세상을만드는사람들(대표 강인덕)이 7월 28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함박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대호)에 사랑의 쌀 및 코로나19 예방물품을 후원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물품은 쌀 400kg, 컵라면 5박스, 마스크 750매, 손세정제 20개 등으로, 연수1동에 거주하는 이주 고려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강인덕 아름다운세상을만드는사람들 대표는 "취약계층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뿌리가 같은 고려인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도움으로 이번 지원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대호 함박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고려인 중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매우 열악한 상황인데, 아름다운세상을 만드는사람들의 이번 지원이 이들의 생계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